

제 목	국 문	졸업 10년 후 활동의사의 대학별 근무지역과 지역별 의사의 출신대학 분포		
	영 문	Distribution of active physicians and working area after the 10-year medical school gradu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유승흠 ¹ , 손태용 ² , 오현주 ²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¹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²		
	영 문	Seung-Hum Yu ¹ , Tae Yong Sohn ² , Hyohn-Joo Oh ²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 ²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 형식	포 스텐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0 월			
<p>1. 연구목적</p> <p>의과대학을 졸업한지 10년 후인 1995년 현재를 시점으로 1985년 이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비활동의사들(해외이주자, 군의관, 사망자 및 비의료직 등)을 제외시킨 국내 활동의사들의 출신대학별 근무지역과 지역별 출신대학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 출신대학별 의사인력 수급계획 및 장기적인 인력활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p> <p>2. 연구방법</p> <p>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동중인 의사수 및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정기신고자료로서 회원의사 개인의 특성을 거의 보관하고 있으나 회원에 대한 정기신고 의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미신고 회원이 있어 자료의 정확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 639명과 사망자 1,437명, 해외이주자 3,756명, 전공의 13,768명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1995년 9월 1일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록회원수는 57,311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졸업10년후 국내활동 중인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한 결과 27,728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p> <p>분석방법은 병원의 진료권을 산정하는 방법중 내원환자의 지역별 구성도(commitment index; C.I.)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친화도(relevance index; R.I.)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정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중 단위지역내 거주하는 졸업생수</p> $C.I. = \frac{\text{특정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중 단위지역내 거주하는 졸업생수}}{\text{일정기간 특정의과대학의 졸업생수}}$ <p style="text-align: center;">일정기간 단위지역내의 특정 의과대학 졸업생수</p> $R.I. = \frac{\text{일정기간 단위지역내의 특정 의과대학 졸업생수}}{\text{일정기간 단위지역내의 졸업생수}}$				

3. 연구결과

1) 활동의사들의 각 출신대학별 근무지역현황을 보면 E대학 출신의사들의 경우 졸업생 중 서울지역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F대학(57.9%), A대학(50.6%), C대학(61.9%), G대학(66.2%), N대학(53.5%), M대학(50.4%), K대학(50.4%) 등의 출신의사들도 각각 서울지역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D대학 출신의사들의 경우는 경남지역(81.7%)이 많았고, B대학은 경북지역(60.0%)이 많았으며, L대학의 경우는 충남지역(48.6%)이 가장 많았다. H대학과 J대학은 전남지역이 각각 38.0%와 30.0%로 많았고 I대학은 전북지역(53.6%)에 근무하는 활동의사들이 가장 많았다.

2) 활동의사들의 근무지역별 출신의과대학 현황은 서울지역은 E대학(23.7%) 출신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대학(17.2%), F대학(13.0%) 순이었다. 경남지역은 D대학(43.7%) 출신의사가 많았고 경북지역은 B대학(74.0%) 출신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의 경우는 C대학 출신의사들이 14.6%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과 전남지역은 H대학이 각각 40.0%와 71.0%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과 충남지역은 L대학 출신의사들이 각각 18.8%와 32.8%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강원지역은 F대학(24.1%)이 많았으며 제주지역은 E대학(17.6%) 출신의사가 가장 많았다.

3) 활동의사들의 출신대학별 전문과목의 분포를 보면 A대학(15.3%), B대학(15.4%), D대학(15.9%), E대학(16.7%), F대학(14.8%), I대학(16.3%), K대학(13.5%), L대학(18.3%), M대학(15.2%), N대학(15.1%)의 경우 내과전문의가 가장 많았다. C대학과 J대학은 산부인과가 각각 15.4%와 14.1%로 많았고 G대학은 소아과(19.2%)가 많았으며 H대학은 일반외과(15.0%)가 가장 많았다.

4) 활동의사들의 출신대학별 취업형태를 보면 E대학(59.2%), F대학(55.1%), K대학(50.3%) 출신의사들이 의료기관에 취업한 의사들이 많았고 개설의사들의 경우는 B대학(60.4%), C대학(64.4%), D대학(58.8%), G대학(56.0%), H대학(67.4%), I대학(51.4%), J대학(67.3%), L대학(64.7%), M대학(51.4%), N대학(51.6%) 출신의사들이 가장 많았다.

4. 고 찰

이 연구결과를 미루어 보아 대부분 특정지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대학들 중에서 몇개의 대학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졸업 출신자들이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불행히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당지역에서 의료서비스 할 수 있는 계기와 지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의 의사인력이 적절하게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